

1. 십일조, 10%의 의무가 아닌 100%의 삶

우리는 흔히 십일조를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십일조는 단순히 금액이나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신과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집이나 음식, 옷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돈도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십일조라는 것을 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십일조는 하나님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한 제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말이죠. 십일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공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십일조의 본래 정신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십일조에는 크게 세 가지 정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헌신을 위한 십일조 (민수기 18:21–29)

레위인과 제사장은 기업으로 받을 땅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공동체가 드린 십일조로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십일조 정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축제를 위한 십일조 (신명기 14:22–27)

하나님은 해마다 소출의 십일조를 성소로 가져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십일조는 단순히 바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였습니다. 성소가 멀 경우에는 소출을 돈으로 바꾸어 필요한 음식을 사고 가족과 함께 즐기도록 했습니다. 십일조는 곧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뻐하고 나누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 돌봄을 위한 십일조 (신명기 14:28-29)

매 3년마다 소출의 십일조를 성읍에 모아두어, 외국인(난민), 고아,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배부르게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십일조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의 좋은 제도였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십일조는 종종 왜곡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이 십일조를 자랑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책망했고(암 4장), 말라기 선지자는 십일조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들이 채소까지 꼼꼼히 십일조를 드리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정의·자비·신실함과 하나님 사랑을 외면한 것을 비판하셨습니다(마 23:23, 뉘 11:42)

십일조를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고민하시는게 당연합니다.

고민하는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십일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헌신의 표현이다.
-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행위다.
- 십일조는 성전과 사역, 그리고 필요한 이웃을 돋는 통로였다.
- 개인 축복보다 공동체적 축복과 사회적 나눔의 의미가 크다.
- 십일조는 축복을 보장하는 마법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
- 십일조는 강제가 아니라 신앙적 선택이어야 한다.
-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십일조의 본래 정신은 “10%를 반드시 바쳐야 한다”는 형식적 현금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일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십일조의 형식적 규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과 목적입니다. 바로 그때 십일조는 억압적인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십일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전체가 하

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 _____

-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십일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세우는 제도였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 _____

-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외국인, 고아, 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 _____

- 나는 지금 십일조를 '비율과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와 헌신'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내 태도 안에서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_____

- 예수님은 십일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 자비, 신실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일조를 포함한 신앙 행위를 통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 _____

- 만약 오늘 우리의 교회가 '십일조의 본래 정신'을 회복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바라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 물질과 생명까지도 결국은 주님의 것이오니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일조의 본래 정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형식과 비율에 얹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헌신하는 이들을 세우고,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저의 드림이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정의, 자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응답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